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2)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은 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는 사실이다. 또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 아울러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의 구원 사역이 전 인적인 치유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분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태복음 9:35-36에서 "예수께서...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목자라는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이 없었던 것이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며 비진리와 종교 행위에만 익숙해져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죽은 종교, 형식만 그럴듯한 종교가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단과 귀신들과 거짓 스승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서 온갖 질병과 비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닌가!

예수님의 긍휼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심에 있어서 주된 동기였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막 1:41-42). 마태복음 14:14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라고 하였다. 두 소경을 고치실 때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마 20:34) 이처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동기였던 것이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신 것으로만 알고 가르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분의 신적 권능만이 아니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같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은 그가 가지신 신적 성품이므로 변치 않으신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불쌍히 여기셨다면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다.

질병을 오직 하나님의 징계로만 보며 병자를 죄인 취급하며 소외시키고 비난하고 저주하였던 당시의 사회와 종교계에 예수님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심으로 그들의 시각과 관행이 잘못되었음을 지

적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밝히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 2:17)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육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은 단지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며 구원케 하심에 있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사는 계기가 되게 하는 병 고침이었다.

끝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사역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 5:14-16)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안수함으로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7-18)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복음, 기쁨의 소식이었고, 그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치유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피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을 통하여 사단과 귀신에 사로잡힌 자,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복음인 것이다!